

긴급조치9호 철폐투쟁 30주년 기념문집 30년만에 다시 부르는 노래 (유신독재를 넘어 민주로)

- 엮은이 : 긴급조치9호 철폐투쟁 30주년 기념행사 추진위원회
- 펴낸이 : 이상경
- 펴낸곳 : 자인
- 발행일 : 2005년 5월 13일

1.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인용, 발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저자와 출처를 밝혀 주셔야 합니다.
2. 본 자료는 <http://www.kdemocracy.or.kr/KDFOMS/>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민 주 화 운 동

당신이 만든 우리의 희망입니다

민주주의 발전과 통일한국의 미래.
대한민국의 저력을 이야기 할 때마다
민주화운동의 소중한 경험과 정신을
힘주어 들려주십시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우리들의 소중한 뜻이 펼쳐지도록
국민들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Korea Democracy Foundation
서울시 중구 정동 34-5 배재정동빌딩 1-3층
전화 02-3709-7500 팩스 02-3709-7530
<http://www.kdemocracy.or.kr/>

바로 독재자요, 살인자요, 친일매국노인 박정희라는 사실을 그로부터 한 주일이나 지나서 겨우 알게 되었다.

박정희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는 나는 너무도 기뻐서 다음과 같이 외쳤다.

“나는 자유다. 나는 자유다. 독재자 박정희는 죽었다.”

빛이라고는 들어오지도 않는 좁은 독방에 갇힌 채 수백 번 아니 수천 번 외쳐댔다. 일제에서 해방을 맞은 그날의 감격이 이랬을까 싶었다.

얼마 뒤 수사관들이 육중한 철창문을 덜컥 열어주었다. 그리고는 푸르른 잔디밭으로 나를 끌고 갔다. 다른 때와 다르게 그들은 인자한 표정으로 부드럽게 말했다.

“이 다음에 잘 되시면 우리들을 너무 나쁘게 생각지 마시오, 우리들도 다 국가에서 녹을 먹고 있으니 철저히 조사하는 건 직업상 어쩔 수 없습니다.”

나는 다소 주눅이 든 수사관이 건네 준, 붉은 태양이 그려진 선 담배 한 개피에 불을 붙여 깊게 가슴 속까지 빨아 들였다. 저 멀리 잔디밭에도 함께 끌려와 혹독한 고문과 조작에 대해 조사를 받던 동지들의 지치고 힘든 모습들이 하나둘 보였다. 100일도 넘는 조사 과정에서 처음으로 골방에서 외출한 셈이다. 멀리서 모진 고문에 시달린 권오현(민가협양심수후원회 회장) 선배님의 모습도 보인다. 오랜만에 마주하는 태양, 푸르른 초록의 잔디, 자유롭게 날아가는 담배연기.

독재자 박정희는 김영철의 총탄이 아닌 김재규의 총탄에 급살을 맞아 가고 나는 독재자들이 만든 지옥에서 80년 5월 석방되었다. 그러나 비운의 한반도에 들이닥친 것은 총칼로 선량한 시민을 살육한 반동적 군사정권의 등장이었으며 학업을 포기한 채 계속된 나의 험난한 민주화 투쟁은 87년 6월민주항쟁까지 이어졌다.



노 창 식_ 한국신학 신학과 73학번, 신명교회 목사(현)

세월이 많이 흘렀다. 거의 3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으니 말이다. 세월의 힘이 참 강하다. 사람들도 많이 달라졌고, 사회의 모습도 엄청나게 변한 것이다. “같은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 없다”라고 하는데, 그 당시 우리 앞을 흐르던 강물은 정말 멀리멀리 흘러갔다. 그리고 지금 우리 앞을 흐르는 강물은 전혀 다른 강물이다. 그런데 예전의 그 강물, 지금은 바다가 되어 있을지도 모르고, 혹은 증발하여 구름이 되어 있을지도 모르는 그 강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니 어색한 느낌이 밀려든다.

서울 수유리에 소재한 한국신학대학은 매우 작은 대학이다. 전교생이 150명이 채 되지 않으니 말이다. 그러나 민중신학을 비롯한 한국 진보신학의 산실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고 서남동, 고 안병무, 문동환 등 민중신학을 개척한 분들이 모두 한국신학대학 출신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민중신학자들은 학문적으로 신학을 연구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 스스로 민중현장에 투신하고 또한 정치현실에 뛰어들어 옥고를 치렀다. 고 장준하 선생과 고 문익환 목사, 박형규 목사 또한 이 대학 출신이다. 한국신학대학은 한국기독교교장로회(이하 기

장)라는 교단에 속해 있는데, 기장 소속 교수 목사들이 한국 민주화운동에 기여한 업적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사실이다.

기장의 민주화운동은 세 줄기로 나뉜다. 첫째는 민중신학을 비롯한 진보신학을 통한 교수들의 학문운동의 줄기이다. 둘째는 전국에 설립된 기장 소속 교회들을 통한 교회운동의 줄기이다. 셋째는 한국신학대학의 학생운동의 줄기이다. 기장은 이렇게 학문운동과 교회운동, 그리고 학생운동이 하나가 되어 한국 민주화운동에 헌신해 왔다.

한국신학대학은 적은 학생이지만, 전교생이 하나가 되어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 또한 학생뿐만 아니라 교수도 한 마음으로 움직였다. 그래서 1973년 전체 교수들의 삭발 시위는 당시로서는 유명한 사건이었다. 긴급조치 상황에서도 수많은 학생들이 구속되었다. 구속 학생의 전체 수가 다른 대학에 비해 떨어지지만, 전체 학생 대비 구속 학생의 비율은 전국 대학에서 상위권을 차지할 것이다.

1978년 5월 16일 아침, 한국신학대학 예배실에 전교생(130명 정도)이 모였다. 사정은 이랬다. 김희택(당시 학생대표, 현 민주평통 사무총장)과 나는 그 날 교내 시위를 하려고 준비를 하였다. 오전에 전체 학생이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 예배를 마치고 시위를 하려 한 것이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그 날 아침 학교 측은 갑자기 휴강 조치를 내렸다. 김희택과 나는 조금 당황했다. 예배를 위해 전교생이 모여야 하는 건데, 그 전제 조건이 사라진 것이다. 급히 학생들을 설득하여 휴강 조치에 대한 논의를 위해 모이게 하였다. 그러자 예배를 위해 모이는 수보다 더 많은 수의 학생이 모였다. 처음에는 휴강 조치에 반발하는 논의를 하였다. 그러다 미리 준비해 두었던 유인물을 나눠 주고, '5.16선언' 이라고 이름을 붙인 그 유인물을 김희택이 낭독했다. 곧 경찰들이 예배실로 몰려들었다. 우리는 예배실 안에서 긴 의자 등으로 바리케이트를 쳤다. 농성이 시작된 것이다.

저녁 6시쯤까지 그렇게 안에서 농성을 하였다. 그러다 마침내 경찰이 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왔다. 김희택과 나를 비롯하여 몇몇 학생이 경찰에 의해 끌려 나갔다. 학생들의 격렬한 저항이 있었지만 막을 수 없는 일이었다. 이 시위는 학교 측의 휴강 조치가 오히려 도움이 된 것이다. 예상보다 더 많은 학생이 모였고, 또 농성을 통해 학생들의 투쟁의식이 더 높아진 것이다. 끌려가는 우리를 바라보며 남은 학생들은 많이 울었고, 새로운 투쟁의식을 불태웠을

것이다.

그 날 우리는 바위에 계란 하나를 던졌다. 그런데 그 계란은 알이 제법 굵은 놈이었지 싶다. 그리고 1년 5개월 후, 박정희 대통령은 피살되었다. 감옥 안에 있던 우리들도 모두 풀려 나왔다. 물론 그 후 더 심한 억압체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우리는 18년 독재정치를 일단 끝낸 것이다. 흔히 “바위에 계란 던지기”라는 말을 냉소적으로 사용하지만, 그 일만큼 위대한 진실이 또 있을까?

예전에 우리 앞을 흐르던 강물이 지금은 바다가 되어 있을지, 혹은 구름이 되어 있을지 모른다. 언젠가 비가 되어 내려, 새로운 강물로 우리 앞을 흐르게 될 것이다. 그 강물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젓줄이 되기를 소망해 본다.